

논문 5

대학생들의 학업 지속/이동 결정에 대한 탐색적 분석 - 대학선택 요인과 대학생활 경험의 영향

김 성 식*

요약

이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의 기준연도 자료와 1차, 2차 추수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생들의 학업 지속/이동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대학선택 요인과 대학생활 경험 수준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재수나 졸업이전 편입학 계획을 가질 가능성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전문대학보다는 4년제 대학생들일수록 더 높았다. 반면,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이동 계획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낮았다. 실제 학생들의 재학 여부와 이동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대학 학생보다는 4년제 대학생들이 최초 학교나 학과에서 이동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입학 당시 적성보다는 성적을 고려하여 대학과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1년 후 다른 학교나 학과로 이동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수나 편입 계획이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다른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학업중단자의 경우는 학업 이동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일반계 졸업생 보다는 실업계 졸업생이, 4년제 대학 진학자보다는 전문대학 진학자들의 학업 중단에 이를 가능성이 높았다. 학업 중단 가능성은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을 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성적 위주의 진학이 아닌 충실한 진로 지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좀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대학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 서론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급속히 팽창하였다. 1970년 168개 기관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에는 412개 기관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학생수도 201,436명에서 2006년 3,545,774명으로 17배 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서 고등교육 취학률과 진학률도 급속하게 높아져왔다. 2006년 현재,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67.8%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87.5%에 이르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로의 진학률도 68.3%에 이르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처럼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양적인 수치에서 볼 때 대중화의 단계를 넘어 보편화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열된 대학 입학 경쟁은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만들어 내지만, 이후의 학습 과정이나 적응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한다. 더구나 대학 입학에서의 과열 경쟁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이나 계획과는 무관하게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선택 경향은 이후 학업 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편입이나 재수 등의 형태로 연속적인 교육 이동을 만들어 내고 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그리고 명문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과 같은 서열화된 대학 체제는 이러한 학생 이동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이런 결과로 고등교육 재학생들의 학업 중단과 이동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중도 탈락자의 비율이 2000년 4.6%에서 2006년 7.8%로 높아지고 있으며, 대학의 경우도 3.6%에서 4.1%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 대학과 전문 대학에서 제적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지방 전문대학의 경우는 8.7%로 나타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러한 학업 중단자의 상당수는 수도권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한다. 실제 수도권 대학으로 옮긴 지방대학 재학생이 2001년 1,440명에서 2003년 3,08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90년대 중반 이후 전문대학은 편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았다. 2003년 일반대학 편입학자 중에서 60.8%는 전문대학 출신자라는 것을 보더라도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들의 이동 경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최초로 진학한 대학과 학과로부터 다른 교육기관으로 이동해 가는 것은 좀 더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적 중심의 입시 제도와 진로 교육, 그리고 대학 체제를 감안하면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만은 없다. 학생들이 다른 대학과 학과로 이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전에 적절한 진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학 교육 과정도 학생들이 적응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데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일치에 의한 이동은 개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 이탈현상을 심화시키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은 현실적으로 입학과 진학 단계에서 집중되고 있으며 그 이후 학생들의 학습이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생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의 기관 특성을 밝히거나 편입학생에 대한 연구 정도가 이루어져 왔다(이병식, 2003; 오영재, 2005). 이들 연구는 기관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대학 간 이동 영향 요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국 수준의 표집이 아닌 제한된 표본을 갖고 있으며 동일 연령 집단을 분석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이동 및 이행 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는 어떤 학생들이 대학 합격 이후에 학업을 지속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계획하고 이동에 성공하는지를 탐색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최초 입학 당시, 대학과 학과 선택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에 따라서 학업 지속/이동/학업중단에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대학 입학 이후 대학 생활 경험에 의해서도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학업 이동 과정에서 자신의 가정 배경, 개인적 특성, 고등학교 경험과 같은 대학 입학 이전 요인들의 영향이 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학생들의 학업지속/이동 결정에서 고등학교 경험, 대학 선택 요인, 진학 대학 특성 및 경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진학, 학업 지속, 이동 및 중단 경로는 어떠한가?
2. 현재의 대학/학과와 다른 경로로 이동해 있는(또는 계획하고 있는) 학생의 특성은 무엇인가?
 - 2.1. 학생의 가정 배경 특성에 따라서 학업 지속/이동 결정에 차이가 있는가?
 - 2.2 대학/학과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에 따라서 이후 학업 지속/이동 결정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 2.2.1. 적성이나 희망을 고려한 학생들에게서 학업 지속 비율이 높은가?
 - 2.2.2. 성적을 고려하여 대학과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이후 이동 비율이 높은가?
3. 대학 선택 이전의 진로 교육 경험은 이후 학업지속/이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4. 진학한 대학의 특성 및 학교 경험 수준은 학업지속/이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4.1. 대학 유형(4년제 대학/전문대학, 서울/광역시/기타)은 학생들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가?
 - 4.2. 대학 생활 만족 정도는 학생의 이동 결정에 영향을 주는가?
 - 4.3. 학생 간 관계는 학생의 이동 결정에 영향을 주는가?
 - 4.4. 학생-교수 관계는 학생의 이동 결정에 영향을 주는가?

2. 연구 방법

가. 데이터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학생들의 재학 여부와 이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1차 추수조사와 2차 추수조사에서 수행된 대학생 설문 결과를 활용하였다. 학생의 성별, 가정 배경, 고등학교 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을 위해서 기준 연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차년도 조사에 응한 3,478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나. 변인 구성

종속 변인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대학교 1학년부터 2학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학생들

의 대학/학과 이동 계획 여부와 실제 다른 대학/학과로의 이동 여부이다.

먼저, 대학/학과 이동 계획 여부는 1차, 2차 추수조사 대학생 설문지에서 재수 여부 문항¹⁾과 편입/전과 계획여부 문항²⁾을 사용하였다. 재수를 하거나 졸업이전 같은 대학의 다른 학과나 다른 대학으로 전과 또는 편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다른 대학이나 학과로의 이동 계획이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1차 추수조사에서 비진학자로 조사된 학생 가운데 입학 단계에서 합격하였으나 등록하지 않았거나 조사 시점이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도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다른 대학/학과로의 실제 이동 여부는 1차 추수조사에서 조사된 대학 및 학과와 2차 추수조사에서 조사된 것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로 보았다. 다음에서 설명하듯이 대학이나 학과를 변경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대학 학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학업 중단과 재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을 분석에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대학생 설문 문항과 비진학 설문 문항이 동일하지 않아서 분석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최종 분석 단계에서는 결측 사례로 제외되었다.³⁾

독립 변인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인은 대학 입학 이전의 요인, 대학 특성 요인, 대학 선택 요인, 대학 경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대학 입학 이전 요인으로는 부모 교육수준과 가구 소득 수준의 가정 배경, 학생의 성별, 졸업 고교 유형과 진로 지도의 고등학교 경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부모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학력을 교육 연한으로 변환한 다음 평균하여 사용하였고⁴⁾, 가구 소득은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자연로그화한 값을 사용하였다.⁵⁾ 학생의 성별은 여학생을 1의 값으로 하는 더미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졸업한 고교 유형은 일반계와 실업계(=1)를 구분하였다. 고등학교 시기 진로 지도의 경험은 기준연도 학생 설문지에서 학생이 경험한 진로 지도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⁶⁾

대학 특성 요인으로는 대학 유형과 소재 지역을 사용하였다. 학생 이동이 지방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더욱 빈번히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학 유형은 2-3년제의 전문대학이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인으로 하였고, 지역 변인은 서울을 기준으로 하여 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을 각각 더미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1) 사용된 변인명은 F1C01038, F2C01066임.

2) 사용된 변인명은 F1C01053, F2C01082임.

3) 2차 추수 조사에서 대학생 설문지에 응답한 1,739명 중 170명이 1차년도와 대학 또는 학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 입학에는 합격하였으나 미등록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303명이었고, 이 가운데에서 101명이 다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모의 최종학력은 무학은 0, 초등학교 졸업은 6, 중학교 졸업은 9, 고등학교 졸업은 12, 2-3년제 대학 졸업은 14.5, 4년제 대학 졸업은 16, 석사 학위는 18, 박사 학위는 21의 값을 부여하여 변환하였다.

5) 대학 입학 이전 요인은 과거 요인의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조사 기준연도의 정보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6) 설문 문항에는 진로와 직업 교과 이수, 진로 관련 강연, 학교 및 학교 안내, 진로 관련 검사, 직업 체험, 직업 상담 등 6개 유형의 진로 지도 유형의 경험 여부가 제시되어 있다(BYS20003~BYS20016).

학생들이 입학한 대학에서 학업을 지속하지 않고 중도에 변경하거나 그만두는 이유는 자신의 적성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입학 당시 대학 및 학과 선택 요인을 사용하였다.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가지 요인을 묻는 대학생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적성을 고려한 선택, 성적을 고려한 선택, 기타 선택으로 범주화 하였다. 적성을 고려한 선택 범주는 대학과 학과 선택에서 모두 자신의 적성과 희망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학생들이고, 성적을 고려한 선택은 대학 선택이나 학과 선택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을 고려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들이다. 이들 두 범주의 학생들을 기타 학생들을 기준 집단으로 하여서 각각 더미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 입학 이후 경험적 요인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학생활 만족도, 강의 집중 정도, 친구 관계, 교수 면담 빈도 등을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대학 생활 만족도는 현재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대학생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단일 문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척도 변인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을 1의 값을 갖도록 하는 더미 변인으로 사용하였다.⁷⁾ 강의 집중 정도는 강의태도와 관련된 문항 가운데 강의 시간에 집중한다는 문항을 사용하여 대학생활 만족도 변인과 마찬가지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을 1의 값을 갖도록 하는 더미 변인으로 사용하였다.⁸⁾ 친구 관계는 대학 생활에 관한 문항 중에서 학교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⁹⁾ 이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59.9%) 이 변인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을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았다(21.8%). 교수 면담 빈도는 전혀 없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여 1-2회, 3회 이상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¹⁰⁾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 통계값은 다음과 같다.

7) 1차 추수조사의 대학생 설문지의 문항 19번(F1C01034).
 8) 1차 추수조사의 대학생 설문지의 문항 14-5번(F1C01024).
 9) 1차 추수조사의 대학생 설문지의 문항 17-1번(F1C01027).
 10) 1차 추수조사의 대학생 설문지의 문항 18번(F1C01033).

〈표 1〉 사용 변인의 기술 통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동 계획	2456	0.17	0.37	0.0	1.0
타대학/학과 이동	1518	0.11	0.32	0.0	1.0
학업중단	1518	0.03	0.17	0.0	1.0
부모 교육수준	3335	11.20	2.73	0.0	21.0
가정수입(LN)	3246	5.41	0.67	0.0	7.6
여학생	3478	0.45	0.50	0.0	1.0
실업고 졸업	3478	0.49	0.50	0.0	1.0
진로 지도	3478	2.70	1.44	0.0	6.0
전문대학	2456	0.44	0.50	0.0	1.0
광역시	2456	0.29	0.45	0.0	1.0
중소/읍면지역	2456	0.59	0.49	0.0	1.0
적성고려	2456	0.51	0.50	0.0	1.0
성적고려	2456	0.32	0.47	0.0	1.0
대학생활만족도	2453	0.45	0.50	0.0	1.0
강의집중도	2454	0.51	0.50	0.0	1.0
학생관계	2452	0.22	0.41	0.0	1.0
교수면담빈도1	2425	0.42	0.49	0.0	1.0
교수면담빈도2	2425	0.16	0.37	0.0	1.0

다. 분석 방법

이 연구는 학업 지속/이동 계획과 이동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하여 다른 대학이나 학과로 이동(재수, 편입, 전과 등)하려는 계획 결정에 관련 변인들이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동 계획의 경우는 계획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이항 변인이고, 실제 이동 여부의 경우는 동일 학교에서 학업 지속, 타학교 및 학과로의 이동, 학업 중단의 세 범주를 갖는 다항 변인이다. 이에 따라서 실제 이동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용되었다.

3. 대학 진학과 이동

가. 대학 입학과 학업 지속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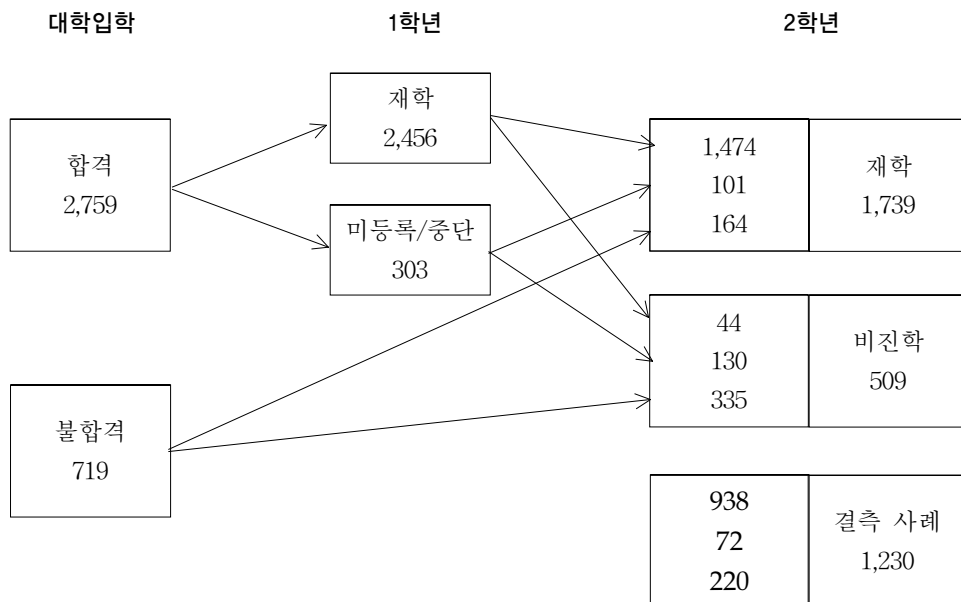
2004년 기준연도에 이어 2005년 1차 추수조사 시점에서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의 표본 학생은 3,478명이었다. 원표본 4,000명 중에서 522명(13.1%)이 결측 사례로 나타났다. 1차 추수조사에 응답한 이들 학생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들 학생의 대학 진학 및 학업 지속 경로를 살펴보았다. 이를 그림으로 요약한 것이 [그림 1]이다.

이들 학생 중에서 대학에 합격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은 모두 2,759명이었고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거나 아예 응시하지 않은 학생이 719명이었다. 2005년 대학입시에서 어느 한 대학이라도 합격한 비율은 80.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들 합격자 중에서 303명(11.0%)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조사 시점 이전에 최초 입학한 대학에서의 학업을 중단하였다. 이로서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재학 비율은 71.6%로 감소하였다. 이들 학업 중단자 중에서 조사가 되지 않은 72명을 제외하고 160명(68.3%)은 그 다음해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점에서 미등록 및 학업 중단은 상당 부분 다른 대학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수를 통한 합격률은 63.1%로 당초 합격률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첫 번째 대학 입시에 불합격한 학생들의 다음번 합격 비율도 32.9%로 매우 낮았다 (=164/(164+335)). 여기에는 재수를 선택한 사람들은 좀 더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합격 가능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학 단계에서 이탈된 학생들이 새롭게 대학 진학하는 것은 더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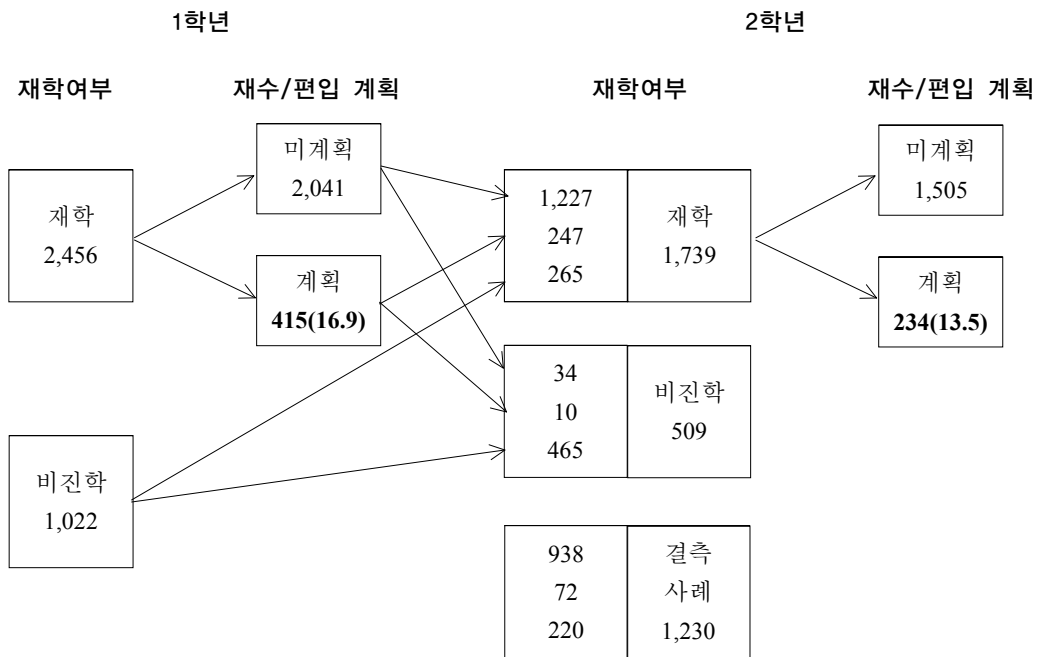
1학년 조사 시점에서 대학 재학자 2,456명 중에서 44명이 실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중도 포기자도 있을 수 있으며, 재수를 위해 중단하였으나 다음 번 입시에서 합격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1학년때 미등록이거나 학업 중단이었던 학생들 중에서 130명이 2학년때에도 비진학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학년 조사 시점에서 재학 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조사가 성공된 2,248명 중에서 모두 1,739명으로 나타나서 77.4%의 비율을 보였다. 재수를 통한 입학으로 인하여 1학년 시점에서보다 대학 재학 비율이 조금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대학 입학 및 학업 지속 경로

나. 재학생들의 재수 및 편입학 계획

학교와 학과 이동은 반드시 학업을 중단한 채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많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미 입학한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가능성은 학생들의 다른 학교로의 이동을 위한 재수, 편입학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학생들의 재수/편입 계획 여부에 따른 이동 경로를 요약한 것이 [그림 2]이다.



[그림 2] 재학생들이 재수/편입 계획 여부와 이동 경로

1차 추수조사 시점에서 대학 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2,456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에서 415명이 재학 중에 재수를 하고 있거나 졸업 이전에 편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학생 중의 16.9%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당 수준의 학생들이 학교나 학과를 바꿀 의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졸업 이전에 다른 대학이나 학과로 이동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졸업 이후에 편입학이나 재입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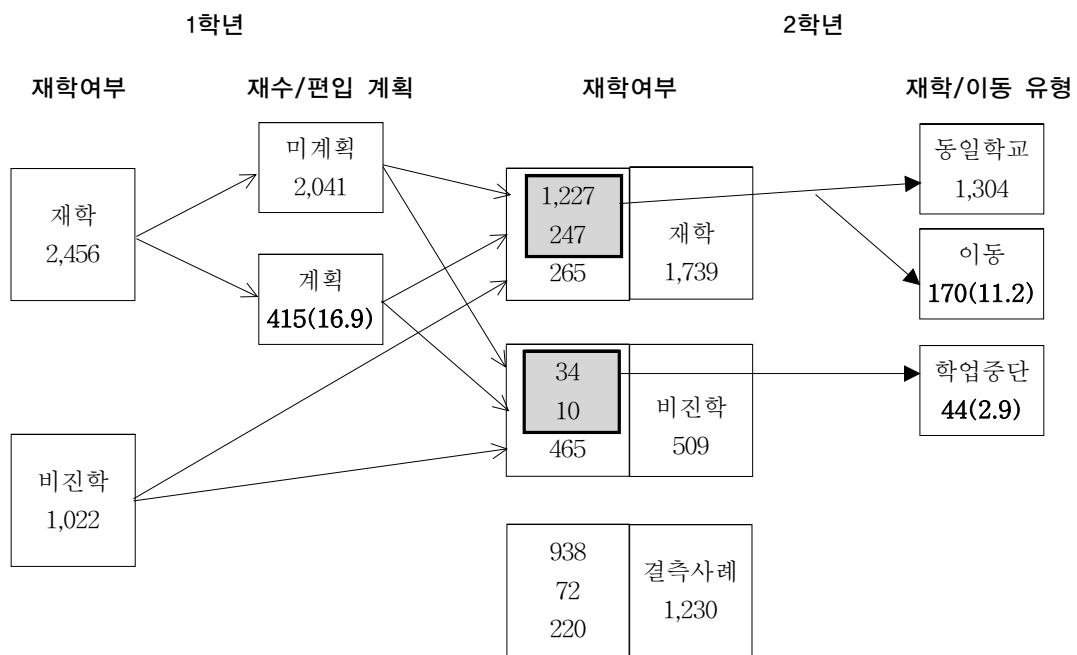
2차 추수조사 시점인 대학 2학년에서는 이동 계획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13.5%로 1학년 시점보다 약간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감소 현상에는 학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학 생활에 적응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전문대학의 경우 현재 당장의 학교 이동보다는 졸업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다른 대학 및 학과로의 이동

여기에서는 재학생들의 재수/편입 계획은 학생 이동에서 어느 정도 실제 실행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본다. [그림 3]은 대학생들의 재수 및 편입 계획 여부에 따라서 이후 재학 유형과, 학교/학과 이동 경로를 요약한 것이다.

재수나 편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현재의 대학을 그만두지는 않는다. 1차 추수조사 시점에서 재수 또는 편입 계획이 있었던 학생 가운데 실제 학교를 그만둔 학생의 비율(3.9%)은 재수, 편입 계획이 없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2.8%)보다는 높았지만 실제 수로는 10명으로서 소수에 불과하였다. 상당수의 학생들은 현재의 대학 학업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2학년 시점에서 대학이나 학과가 변동된 학생은 170명이었다. 이는 1학년, 2학년 대학, 학과 정보를 알 수 있는 유효사례 1,474명 중 11.2%에 해당한다. 이중에서 1학년 시점에서 재수이나 편입 계획이 있었던 415명으로 한정하여 보면, 실제 13.0%에 해당하는 48명만이 학교나 학과를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학교나 학과를 이동한 170명 중의 비율을 보아도 28.2%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학업 이동 계획이 반드시 실행으로 옮겨지거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림 3] 재학생들이 재수/편입 계획 여부와 실제 이동 여부

4. 대학생들의 학업 지속 및 이동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지속 및 이동에 대한 학생과 학교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른 대학과 학과로의 이동에 대한 계획 여부와 실제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재수/편입 계획

<표 2>는 대학 재학생들의 재수/편입 계획에 대한 학생 및 대학 특성 변인들의 영향력을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 I은 대학 입학 이전 요인들을, 모형 II는 대학 특성 변인들을, 모형 III은 대학 선택 요인을, 모형 IV는 대학 경험 변인을 각각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이다.

부모 교육수준과 가구 소득 변인은 재학생들의 이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배경 수준이 높을수록 재수나 편입 계획을 가질 개연성이 더 높았다. 특히, 가구 소득 수준은 다른 변인들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더라도 독립적인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반면, 부모 교육 수준의 영향력은 대학 특성 변인들이 투입되는 모형 II부터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유형 변인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 교육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전문대학보다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4년제 대학 진학은 이동 계획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 밖의 학생의 성별 요인, 졸업 고등학교 유형, 진로지도 경험 변인은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대학 특성 요인도 학생들의 이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소재 지역보다는 4년제 대학 여부가 더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동 계획은 전문대학보다 4년제 대학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전문대학 재학자의 경우는 1학년 시점에서 처음부터 재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졸업 이후에 4년제로의 편입이나 재입학 등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성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대학 선택 요인에서 적성을 고려한 대학 선택은 대학생들의 이동 계획 개연성을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성적을 고려한 대학 선택은 이동 계획을 높이는 효과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학 경험 요인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대학생활 만족도이었다. 대학생활 만족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타대학이나 학과로의 이동 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대학생활 만족 수준이 이동 계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동 계획이 없기 때문에 대학생활 만족수준이 좀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활의 만족 정도와 학생 이동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적용된 하위모형들이 대학 재학생들의 재수 또는 편입과 같은 이동 계획에 대하여 갖고 있는 설명력이 .013-.060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들 모형에서 사용된 변인들이 대학 재학생들의 재수/편입 계획에 대하여 그렇게 양호한 모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재학생들의 이동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적합한 모형을 찾는 일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독립변인들이 분항 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척도 문항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더미 변인으로 사용되었다는 점도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재수/편입 계획 여부에 대한 학생 및 대학 특성 변인의 영향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B	S.E.	B	S.E.	B	S.E.	B	S.E.
부모교육	0.052	0.025 *	0.043	0.026	0.043	0.026	0.046	0.026
가구소득	0.284	0.111 *	0.239	0.112 *	0.256	0.113 *	0.296	0.115 *
여학생	-0.004	0.115	0.035	0.116	0.062	0.117	0.045	0.120
실업고 졸업	-0.238	0.122	-0.035	0.134	-0.017	0.135	-0.081	0.138
진로지도	0.023	0.041	0.019	0.041	0.022	0.041	0.047	0.042
대학유형			-0.514	0.136 ***	-0.532	0.137 ***	-0.573	0.141 ***
광역시			-0.177	0.198	-0.180	0.199	-0.303	0.203
중소도시			0.085	0.178	0.074	0.179	-0.023	0.183
적성고려					-0.298	0.165	-0.174	0.168
성적고려					0.143	0.169	0.102	0.173
대학생활만족							-1.122	0.135 ***
강의집중정도							0.029	0.121
친구관계							0.034	0.146
교수면담 1							-0.110	0.129
교수면담 2							0.140	0.178
Constant	-3.748	0.584 ***	-3.296	0.633 ***	-3.296	0.648 ***	-3.108	0.661 ***
사례수		2,277		2,277		2,277		2,277
-2ll		2016.294		1997.775		1985.164		1905.218
Cox & Snell R2		.013		.021		.027		.060

* : p < .05, ** : p < .01, *** : < .001

나. 학교 및 학과의 이동

<표 3>는 대학 재학생들의 학교와 학과 이동, 그리고 학업 중단에 대한 학생 및 대학 특성 변인들의 영향력을 추정한 결과이다. 앞의 이동 계획에 대한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모형 I은 대학 입학 이전 요인들을, 모형 II는 대학 특성 변인들을, 모형 III은 대학 선택 요인을, 모형 IV는 대학 경험 변인을 각각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이다. 여기에 학교/학과 이동 계획이 실제 학생 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학

생들의 이동 계획 여부를 모형 V에서 포함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종속 변인이 동일 학교, 이동, 학업 중단 등의 세 범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 학교 범주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두 범주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상단 부분이 동일 학교/학과에 재학할 확률에 대비한 이동 확률을 분석한 것이고, 하단 부분이 동일 학교/학과에 재학할 확률에 대비한 학업 중단 확률을 분석한 것이다.

부모 교육수준과 가구 소득 변인은 재학생들의 실제 학생 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학업 중단에 대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부모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대학이나 학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부모 교육수준은 다른 대학 특성 변인들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모형 II에서 다른 변인들이 투입됨에 따라서 그 영향력의 크기는 더욱 감소하였다.

반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서 학업 중단 비율이 낮았다. 다른 학교로의 이동 가능성도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또한 실업계 졸업자들의 학업 중단 비율이 높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진로 지도 경험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중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진로 지도가 성취 수준이 낮거나 진학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학생들에게 더욱 집중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대학 특성 요인은 앞서 살펴본 이동 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이동과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소재 지역보다는 4년제 대학 여부가 더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 이동은 전문대학보다 4년제 대학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이동 계획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며 실제로도 더 많은 비율로 이동에 성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 이동이 아닌 학업 중단의 경우는 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우에 그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학교나 학과 이동은 상향 이동일 가능성이 있고, 학업 중단의 경우는 중도 탈락(dropout)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학 선택 요인에서 성적을 고려한 대학 선택은 대학생들의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의 영향력은 다른 대학 경험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독립적인 효과를 갖는다.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입학 가능할 수 있는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하면, 합격을 하더라도 대학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수준의 대학으로 가기를 원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대학 선택 요인이 학업 중단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었다.

대학 경험 요인에서 실제 학생 이동이나 학업 중단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단지 대학생활 만족 수준이 학업 중단 가능성을 낮추어 주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재수 편입 계획 변인이 투입되면 그 영향력이 감소하여 유의도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수/편입 계획 여부는 학생 이동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갖고 있으나 학업 중단에 대해서는 다른 변인들과 독립적인 효과를 갖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학생 이동과 학업 중단에 대한 학생 및 대학 특성 변인의 영향

범주	변인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모형 V	
		B	S.E.	B	S.E.	B	S.E.	B	S.E.	B	S.E.
1	절편	-3.505	0.863 ***	-2.371	0.908 ***	-2.766	0.943 **	-2.997	0.981 **	-2.936	0.979 **
대학	부모교육	0.072	0.038	0.053	0.038	0.047	0.039	0.049	0.040	0.041	0.040
학과	가구소득	0.124	0.166	0.011	0.163	0.032	0.166	0.089	0.173	0.056	0.173
이동	여학생	-0.336	0.174	-0.252	0.176	-0.255	0.177	-0.240	0.181	-0.251	0.182
	실업고 졸업	-0.284	0.193	0.186	0.211	0.219	0.214	0.241	0.216	0.253	0.217
	진로지도	0.072	0.062	0.075	0.064	0.076	0.064	0.097	0.066	0.089	0.066
	대학유형			-1.195	0.235 ***	-1.190	0.237 ***	-1.163	0.241 ***	-1.108	0.242 ***
	광역시			-0.289	0.274	-0.284	0.275	-0.324	0.277	-0.276	0.278
	중소도시			-0.102	0.235	-0.097	0.237	-0.139	0.240	-0.154	0.240
	적성고려					0.169	0.287	0.186	0.290	0.226	0.292
	성적고려					0.711	0.292 *	0.703	0.295 *	0.713	0.297 *
	대학생활만족							-0.270	0.193	-0.115	0.201
	강의집중정도							0.239	0.185	0.222	0.186
	친구관계							-0.354	0.235	-0.370	0.236
	교수면담 1							-0.202	0.196	-0.211	0.196
	교수면담 2							-0.105	0.278	-0.128	0.279
	재수편입계획									0.635	0.215 **
2	절편	-3.223	1.260 *	-3.933	1.433 **	-3.787	1.479 *	-3.853	1.607 *	-3.839	1.606
중도	부모교육	0.031	0.066	0.045	0.068	0.047	0.069	0.059	0.073	0.055	0.073
탈락	가구소득	-0.295	0.222	-0.248	0.232	-0.240	0.237	-0.152	0.257	-0.165	0.258
	여학생	-1.051	0.329 **	-1.082	0.332 **	-1.068	0.333 **	-1.183	0.354 **	-1.182	0.354 **
	실업고 졸업	1.074	0.351 **	0.708	0.384	0.711	0.385	0.857	0.423 *	0.859	0.423 *
	진로지도	0.341	0.113 **	0.329	0.112 **	0.331	0.112 *	0.299	0.116 *	0.301	0.117 *
	대학유형			0.938	0.405 *	0.916	0.407 *	1.047	0.448 *	1.071	0.449 *
	광역시			-0.318	0.634	-0.348	0.635	-0.643	0.661	-0.625	0.663
	중소도시			0.109	0.564	0.084	0.566	-0.084	0.581	-0.079	0.582
	적성고려					-0.324	0.416	-0.076	0.444	-0.076	0.444
	성적고려					-0.100	0.445	-0.048	0.474	-0.048	0.474
	대학생활만족							-0.802	0.409 *	-0.755	0.415
	강의집중정도							-0.227	0.362	-0.231	0.362
	친구관계							0.024	0.412	0.026	0.412
	교수면담 1							-0.397	0.379	-0.385	0.379
	교수면담 2							-0.253	0.510	-0.244	0.510
	재수편입계획									0.307	0.460
	사례수		1,419		1,419		1,419		1,397		1,397
	-2ll		114.638		1187.004		1208.869		1179.475		1173.724
	Cox & Snell R2		.035		.062		.069		.080		.085

* : p < .05, ** : p < .01, *** : < .001

여기에서 적용된 하위모형들이 대학 재학생들의 다른 대학이나 학과로의 이동, 또는 학업 중단에 대한 설명력이 .035-.085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

요가 있다.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사용된 변인들이 대학 재학생들의 이동 과정을 설명하는 데 그렇게 양호한 편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밝혔듯이, 여기에는 독립변인들이 문항 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척도 문항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더미 변인으로 사용되었다는 점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학생들의 이동 과정을 좀 더 적합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모형을 찾는 일이 요청된다.

5.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의 기준연도 자료와 1차, 2차 추수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생들의 학업 지속/이동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의 현재 상태를 대학입학여부, 이동계획, 이동 및 학업중단의 과정으로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2005년 대학입시에서 전국의 어느 한 대학이라도 합격한 경우는 2,759명으로 전체 분석 대상자 가운데 80.7%이었다. 이들 합격자 중에서 303명(11.0%)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조사 시점 이전에 최초 입학한 대학에서의 학업을 중단하였다. 이들 학생들은 다시 대학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업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중도 탈락한다. 최초 입학한 대학에 등록한 재학생 중에서도 재수나 편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발생하며, 실제로 2차 추수조사 시점에서 학교 또는 학과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학교나 학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학생은 415명(16.9%) 정도 이었다. 2학년 시점에서 대학이나 학과가 변동된 학생은 170명이었으며, 1학년, 2학년 대학, 학과 정보를 알 수 있는 유효사례 1,474명 중 11.2%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1학년 때는 재학하고 있었으나 2학년 때에는 학업 중단인 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44명(2.9%)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이와 같은 이동 계획 여부와 학업지속/중단에 대한 학생 배경 요인, 대학선택 요인, 대학생활 경험 수준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재수나 졸업이전 편입학 등의 이동 계획을 갖게 되는 가능성은 부모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전문대학보다는 4년제 대학생들일수록 더 높았다. 반면,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이와 같이 재수나 편입학을 통한 이동 계획의 가능성이 낮았다. 실제 학교 또는 학과의 이동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대학 학생보다는 4년제 대학생들이 다른 학교와 학과로 이동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입학 당시 성적을 고려하여 대학과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1년 후 다른 학교나 학과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재수나 편입 계획이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학업중단의 경우는 학업 이동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일반계 졸업생 보다는 실업계 졸업생이, 4년제 대학 진학자보다는 전문대학 진학자들의 학업 중단에 이를 가능성이 높았다.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 중단의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대학생들의 이동이 상당 수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대학간, 학과간 이동 자체가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오히려 고등학교의 제한된 정보만으로 단편적인 선택이 이루어고 그것이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더욱 문제일 수 있다. 대학간, 학과간 이동은 학생들에게 제2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4년제 대학에서, 그리고 성적 위주의 대학 선택을 한 학생들에게서 대학 이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는 여전히 서열화된 대학 체계 속에서 학생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대학생활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 이동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는 학생 이동이 온전히 개인 선택의 문제만은 아니며, 만족스럽지 못한 대학 교육도 학생 이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등학교 시점에서는 성적 위주의 진학이 아닌 적성에 맞는 진로 지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대학도 학생들의 적응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권 균. 1991. 대학에서의 중도탈락 원인과 그 억제방안. *교육학연구* 29(3):235-249.
- 김수연. 1998. 전문대학생의 자퇴 및 휴학(계획) 결정 요인. *교육사회학연구* 8(2):77-108.
- 김재용. 1992. 미국 대학생 중도탈락: 개인, 사회구조, 대학의 상대적 중요성. *교육행정연구* 10(1):17-48.
- 오영재. 2005. 대학간 학생이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교육행정연구* 25(1): 327-356.
- 이두휴·고형일. 2003. 대학서열체계의 공고화와 지역 간 불균등 발전. *교육사회학연구* 13(1): 191-214.
- 이병식. 2003. 대학생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기관특성의 탐색적 분석. *교육학연구* 41(2) 135-154.
- Conley, D. 2001. Capital for college: parental assets and postsecondary schooling. *Sociology of Education* 74:59-72.
- Prager, C. 1993. Transfer and articulation within colleges and universitie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4(5): 539-554.
- Tinto, V. 2003.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process of student mobility and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relevant factors in the context of higher education of Korea. The data are used from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data(KEEP). The results are reported as follows. An amount of students will plan to transfer the other university and college, and actually they accomplished it for 1 year. The variables of student backgrounds, for example, parent education and income, are positively influence on increasement of probability of student movement. And the students enrolled 4-year university have higher probability for moving into other institute rather than those of 2-year college. In the process of college entrance, the choice of university or college based on students' grades increases the probability for student to move into other university and college after entering that institute. Besides, the high level of satisfaction with higher education makes students stay to study at their first institution.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more appropriate career guide program is needed in high-school stage and the educational program should be improved to satisfy students in tertiary educational institutes.